

[ 종합 ]

한국사회 최대 화두  
고·용·불·안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조사

대다수 한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고용 불안'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시사미디어가 최근 한국의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5%가 고용 불안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했다. 정치적 리더십 부재(30.4%), 저출산·고령화(28.3%), 집단이기주의(25.8%), 경쟁력 낮은 교육(2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는 100명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를 읽는 10개의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 일반인 1천명에게 다시 이들 키워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또 '누가 이들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하는지 9개 집단(사람) 가운데 2개를 고르라'는 질문에는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많았고, 정부 관료(32.3%), 대통령(26.6%), 재벌·기업가(22.9%) 등 순이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버려야 할 풍조'를 꼽으라는 문항에는 집단이기주의(35.6%), 각종 청탁(32.0%), 학벌주의 등 간관주의(29.2%) 등의 답변이 많았다. /연합뉴스

이명박 '西進' 시동

13일부터 무안지역서 농항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다음 주 호남 농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진(西進)'에 나선다.

이 전 시장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호남 지역 4개 대학 학생들과 함께 무안지역에서 농촌봉사 활동을 갖는다.

이 전 시장의 측근은 7일 "(한나라당 불모지인) 호남 지역에 대해 경제와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구상"이라며 "영·호남 갈등의 골이 깊어진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치 과잉이라고 판단. 정치를 배제하고 경제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은 오는 8월호 호남 농업경영인들과 '농업과 경영의 결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기업 CEO 출신의 현장경영을 바탕으로 기업형태의 농업발전에 대해 조언할 계획이다.

이 전 시장은 호남에서 들어오는 크고 작은 방문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방침이다. 9일에도 지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전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 지역화합과 상생의 정치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단안팎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퇴임 후 '민생대장정'의 첫 방문지로 호남지역을 택한 데 이어 이 전 시장 역시 첫 외부활동을 호남에서 시작하는 것은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동행보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지역의 벽 허문 '아름다운기부'

금호산업, 부산YMCA 공사비 97억여원 탐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참모습 보여준 결단" 환영

호남에 기반을 둔 한 대기업의 아름다운 기부가 영남지역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7일 부산YMCA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에 따르면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YMCA 회관의 시공사인 금호산업(주)이 부산YMCA가 10년째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비 97억여원을 기부형태로 탐감해 주기로 했다는 것. 금호산업과 부산YMCA는 지난달 28일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부산YMCA는 지난 1996년 금호산업에 시공을 맡겨 회관을 완공했으나 IMF와

환위기로 건물 임대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바람에 총 공사비 183억원 가운데 142억원을 시공사측에 지급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로 인해 1998년 회관 건물이 경매위기에 몰리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돼 서명운동과 모금활동으로 '부산YMCA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벌였지만 부채를 갚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노력을 지켜 본 금호산업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 끝에 건물지분을 대물변제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금호산업은 그러나 회사의 결

단만이 사태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조건없이 남은 공사비를 무상기부 형태로 탐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이라는 기업 이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며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를 돕는 것이 간접적으로 부산지역사회를 돕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부산참여자치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참모습을 보여준 결단"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기업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 연설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정형근, 이재오, 강재섭, 전여옥, 이방호, 강창희, 이규택 후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나라 당권주자, 호남표심 '구애'

어제 광주서 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

7일 광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위한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8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광주·전남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 경쟁을 벌였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회관 민주홀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정형근 후보는 "집사람이 전주에서 태어났고 아들은 부안머느리를 얻었다. 처가에 온 사위를 반갑게 맞이해 달라"고 말했다. 또 정 후보는 "대통령은 북한만 보면 키가 작아진다"며 "나는 집권당이 도청하는 내용까지 알아서 알고 있을 정도로 정보에서 뛰어난 만큼 대선 승리의 주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후보는 "12살 아래의 쌍둥이 여동생이 모두 호남에서 사위를 얻은 만큼 호남

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지방선거 때 4.7% 득표에 가슴이 뛰었는데 그 나머지를 당대표가 되어 채우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세번째 연설자로 나선 이규택 후보는 "나는 전주 이씨로, 진짜 호남 사람은 바로 나"라며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어퍼컷, 북한에게서는 뒤통수를 맞아 정신이 없어 조용한 것"이라며 "식물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희 후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난리인데 우리는 북에게 비로나 주고 있다. 무능한 좌파 정권을 물리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재섭 후보는 "대구 출신이지만 28살 때

첫 직장을 광주에서 시작했다"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대양처럼 뭏기해 하고 자신은 그림자가 되는 '말알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와 2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재오 후보는 "80년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3년을 살았다. 현대사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모략하고, 그런 사람들이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했던 한나라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호남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5·18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호 후보는 "호남이 없으면 정권이 없다. 5·31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만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벽은 그리 높지만은 않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권영세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 잘못한 한나라당의 과거와 결별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당대표가 돼 정권관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시설

北 미사일사태 정부대응 왜 이리 산만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전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정부의 조치와 태도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산만하다. 과연 위기발생시 내각과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단계별 매뉴얼이 있거나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미사일발사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조성은 적국 회피해야겠지만 우리 정부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먼것 같다.

첫째는 늑장대응이다. 일본이 미사일 이 발사된 58분 후에 고이즈미 총리관저에서 대책회의를 연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일곱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 회의를 열었다. 둘째는 미사일 발사를 보는 시각이다.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를 북한의 '고도의 정치적 압박행위'로 해석한 반면 합참은 남한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해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 셋째는 정보공유의 부재다. 미사일이 쏠릴 날아가는 시각 아시아나항공기는 동해상을 항행중이었다. 미사일 궤적과 겹치는 감자가 항로에 대한 건교부의 운항금지 조치는 하루가 지난 뒤에야 내려졌다.

북한 미사일 사태는 아직 진행중이다.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 1기가 또다시 발사될 징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발사목적지점은 미 하와이 앞바다라는 분석도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옵션'도 있다고 말했다. 오역은 물론 제한적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의의 경우에도 대비한 모든 예비적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녕을 책임진 정부의 태도다.

대학구조조정 본격화, 지역대학들 거둬나자

7일 제주에서 열린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교육부 차관이 대학정원을 3년내에 무려 5만1천명이나 감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조정계획을 밝혔다. 부산대학을 정리하고 경쟁력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본격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쏜 셈이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병준 내정자가 교육부총리로 취임하기도 전 교육개혁의 주요 타깃으로 대학이 도마에 오른 형국이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보도를 통해 대학이 글로벌 무한경쟁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역 각 대학들도 부실한 학과는 과감히 폐지해야 하며 유사한 학과의 통폐합, 나아가 신입생이 오지않는 대학들은 과감한 폐교도 불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개혁의회가 분

석한 지역 각 대학들의 경쟁력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취업률·학생 중도탈락률·교수 1인당 저서 및 학술 논문수·전입교수 1인당 학생수·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 등 각 항목에서 죄다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장학제도나 학교 밖에서 연구비를 지급 받는 교수의 숫자도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 당장 교육부가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 들 때, 이런 성적표를 가진 광주·전남의 대학들은 정권 축소의 된서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학들의 일대본 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실대학들이 정리되는 시점은 역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망이 없는 대학과 학과는 학생의 장애와 지역사회에 폐만 끼치지 말고 과감히 문을 닫기를 바란다.

전남도의회 의장에 김종철 의원

부의장엔 김창남·김재무 의원

제8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5선의 김종철(시진·52·여수1) 의원이 선출됐다. 전남도의회는 7일 오전 제216회 임시회를 갖고 제8대 전반기 의장에 김 의원을, 제1부의장에 김창남 의원(53·장흥1), 제2부의장에는 김재무 의원(46·광양2)을 각각 선출했다. 이들은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에서 재직의원 51명 가운데 26표를 획득, 24표와 1표를 얻는데 그친 박인환(55·구례2) 의원과 김철주(49·무



김종철 의원

안2) 의원을 제치고 의장에 선출됐다. 광주·전남 유일의 5선 의원인 김 신임 의장은 전남도의회 남해안연료조사특별위원회장과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실시된 제1 부의장 선거에서는 2차 투표 결과 27표를 얻은 김창남 의원이, 제2 부의장에는 35표를 획득한 김재무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콜금리 동결 연 4.25% 현수준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콜금리를 현수준인 연 4.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석달 연속 콜금리 동결 조치를 취했던 금통위는 6월 회의에서 재차 0.25%포인트 인상한 후 7월은 관망세를 유지했다. 이번 콜금리 동결은 시장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조치로, 하반기 경기상승세의 둔화 조짐과 함께 물발 약제로 터져 나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건설투자가 부진하나 수출이 건설신장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으로 실물경제를 종합 평가했다. 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고유가에 따른 상승압력이 지속하고 있다고 금통위는 지적했다.

금통위는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 이달 콜금리 목표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ong-do.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hand holding a pen, with the text '빛의만평' and '김종두' prominently displayed. Below the illustration, it says '도박(?)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다'.

교수·노동단체 협상중단 촉구... 한·미노동계 공동집회

한미 FTA 협상 긴장 고조

정부, 불법행위 자제 호소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노동계가 공동 투쟁에 나서고 교수·노동단체들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가 이들 단체에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평화적·합법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반기문 외교, 전정배 법무, 이용섭 행자, 박홍수 농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FTA 협상 반대 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제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

체에서 시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부총리는 "미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늘릴 뿐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7일 "미국의 주요 노조 단체인 미국노총산별회의와 승리혁신연맹 대표단 6명이 7일 입국할 예정"이라며 "미국 노동계 대표들은 협상 기간인 10~14일 서울에서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nd the website address www.kwangju.co.kr.